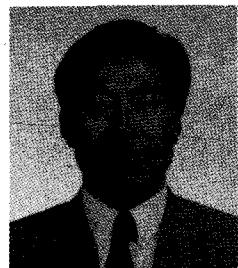


소비창출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한재권
강남부회장 대표

현 재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 과거의 가격위주에서 벗어나 건강을 중시하므로 위생적이고 신선하며, 영양가가 높은 식품선택으로의 기호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식문화에는 더욱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식생활 소비패턴이 양보다는 질적인면을 강조하고 무조건 값싼 제품보다는 값은 비싸더라도 위생적이며 안전한 고급식품을 찾게되는 등 건강을 염려해두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축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생산비가 외국보다 높아 국내 여건상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은 난좌란(세척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며, GP란(세척, 검란, 등급, 오일코팅, 로고)은 5% 내외에 불과하다.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계란의 상품성을 높여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서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계속되는 수입개방압력과 대규모 외국회사의 한국 축산물 유통시장 침투에 대비한 최소한의 대책일 것이며, 이와같은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참여한 G.P(Grading and Packing Center, Egg Station)란을 공급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계란판매를 돋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채란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는 자각해야 할 시점이며 계란의 상품성 향상에 노력, 어떤 방법으로 소비확대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계란 소비는 꾸

준히 신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G.P.C를 통한 산란계 계열화에 의한 유통구조 개선

채란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은 유통관계가 복잡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통마진이 높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란계의 계획된 생산과 선진화된 G.P center를 통한 위생란의 수급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난가의 안정을 도모하여 양계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생산에서 유통의 통합에 의한 모든 당면 문제의 동시해결 수평계열체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효율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해야 한다.

2. G.P.C 계열화의 필요성

1) 사육농가의 소득안정

주체와 계약에 의거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받고 사양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받아 사육 후 생산물을 고정계약하여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므로 극심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율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가격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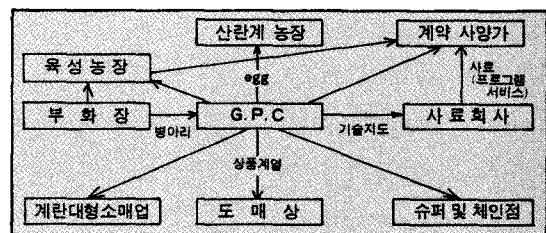
가격 불안정 문제는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가격안정이 되면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시장 확대, 판매량증대, 사육안정을 기할 수 있다.

3) 생산비 절감

원자재의 생산·공급에 따른 각 단계별 이윤을 줄여 최종 소비자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단한 노력으로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사육규모 확대와 자동화로 생산비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이 있도록 유도한다.

G.P.C 계열화 모식도



4) 유통구조의 합리화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산지의 가격이 하락하여도 계란의 소비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란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므로 가장 짧은 유통기간을 유지하여 신선도 및 제품의 품질을 보존하면서 제품의 시장확보, 브랜드화, 가격인하 등으로 주체에서 자발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가능하

게 된다.

3. G.P.C를 통한 계란의 상품화

계란의 판매는 생산으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거쳐 이동하는 것으로 세척, 등급, 검란, 품질에 따른 등급, 포장화가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G.P.C의 기능이다.

국내에서 계란의 G.P.C를 통한 상품화율은 2%에 머물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모든 계란의 세척, 위생처리, 검란을 통해 등급별로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농장에서부터 유통상점까지의 과정에서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소매포장 단위로 유통되고 있다.

구매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포장단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품질등급화와 G.P.C를 통한 위생처리로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계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계란의 영양적 특성 등의 홍보도 계란의 포장개선 못지 않게 중요하다.

4. G.P.C를 통한 위생관리 시급

소비자들의 기호성은 계속 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제 계란의 영양가치만을 따져서 먹지 않는다. 위생을 따지고, 맛을 따지고, 간편성 등 점차 입맛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최근에는 미각문화의 시대로 식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으며, 처리방법도 날마다 새

로워지고 있다.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실은 주부들 사이에서 점진적으로 퍼져 나가는 계란의 위생문제이다.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단계인 사육장, 산란장소, 집란방법 등은 물론이고 보관과 유통단계에서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계란은 위생적(G.P.C-세척-검란-오일코팅-등급-포장)으로 처리되어 유효기간과 등급표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5. 결론

적은 투자와 부족한 시설로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양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활동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질의 양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소비분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수입축산물보다 신선도와 품질면에서 비교우위로 소비가 신장될 수 있도록 모든 생산자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 소비까지 계란의 품질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란의 위생적 처리문제나 소비자가 원하는 계란을 만들기 위한 상품화 등에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